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 이형동 기자 | ㉠ 승인 2024.10.24 15:51

영농폐기물 수거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성주군 자산저수지에서 폐비닐, 폐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난 23일 성주군 자산저수지에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쾌적하고 청정한 농촌 구현을 위해 폐비닐, 폐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이다. 2018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날 직원들은 자산저수지에서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마대를 활용해 쓰레기를 수거했다. 영농 후 농한기에 접어들고 있는 기간에 맞춰 방치되고 누적된 저수지 주변 영농폐기물들을 수거해 깨끗한 농촌환경을 보전했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최근에 실시한 농촌 집 고쳐주기, 농촌 일손 돕기 등 특정 농가 대상 활동뿐만 아니라, 청정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가 관리하는 자산저수지를 방문해 농촌 마을 경관개선에도 힘썼다"면서 "누구나 찾고 싶은 농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hd60lee@naver.com